직지사 주지후보 법보 스님 선출

1월 17일 산중총회 "역대조사 선양사업 전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후보에 前중앙종회의원 법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직지사는 1월 17일 경내 설법전서 교구본사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법보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138명 중 47명이 참석했다.

법보 스님은 선출 직후 "문중 화합과 교구 발전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최선을 다해 소임을 보겠다. 템플스테이를 바탕으로 한 불교문화 확대와 본말사 유대를 돈독히 해 산중 원융화합에 힘쓸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보 스님은 이와 더불어 한글창제 주역인 학조대사와 사명대사, 근대불교 대강백 제산 스님, 관응 · 녹원 스님



등 역대 조사 선양사업을 비롯해 직지사 인근 공원 및 상가 활성화, 직지사승가복지회 확대 등의 사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법보 스님은 1967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삼성암과 학도암 주지, 제12~16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덕숭총림 방장 선출 산중총회 공고

2월 23일 수덕사 황하정루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2월 23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개최된다. 방장 후보자 자격은 선 · 교 · 율을 두루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서 20안거 이상 성만해야 한다. 방장은 산중총회 추천과 중앙종회 추대로 결정된다.

덕숭총림은 前방장인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출마 이후 공석을 유지했다. 이번 산중총회에서 설정 스님과 현재 덕숭총림 원로의원이자 수좌인 우송 스님 중 어느 스님이 차기방장으로 추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산중총회 구성원은 △교구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교구본사에서 임명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교구 본 ·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고, 산중총회 개최일 전 4년 이내로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하거나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등이다. 구성원 명부 열람기간은 2월 14~16일이다. 열람 장소는 수덕사 종무소.

윤호섭 기자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재임

"무거운 책임감, 종단 재도약 위해 노력"

불교총지종 제19대 통리원장에 인선 정사<사진>가 선임됐다. 이에 따라 인선 정사는 제18대에 통리원장에 이어 연임하게 됐다.

총지종 종의회는 1월 15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제144차 종의회를 열고, 현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재임을 결정했다. 총지종은 종령의 후보자 지명과 종의회의 인준으로 통리원장을 선출한다. 제19대 통리원장 임기는 1월 29일부터 3년간이다.

인선 정사는 선출 직후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많이 부족하지만 종령님이 지명해주셨고, 인준해준 종의회에 감사드린다. 새로운 임기 동



안 종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선 정사는 이어 "종단 50주년 사업과 국제재가불교대회의 성공 개최 등 앞으로 수행해야 할 종단사업이 많다"며 "종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은퇴출가제, 중앙 · 현장 '온도차'

은퇴출가제 시행 1년, 교구본사들 불편 호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출가진흥의 한 방편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계종 은퇴출가제도가 첫 사미 · 사미니계 수계자 배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은퇴출가를 관장하는 각 교구본사들은 제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중앙과 현장의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조계종 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출가를 통해 출가, 현재 행자생활을 하는 이들은 총 17명이다.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는 제56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에는 이 중 10명의 행자들이 은퇴출가 시행 최초로 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숫자는 최근 일반출가자 인원이 한 해 150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은퇴출가자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이 많은 후배 부담"

하지만 정작 은퇴출가 행자등록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구본사들은 은퇴출가에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몇 명 되지 않는 나이 많은 행자들을 관리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A교구본사 은퇴출가를 담당하는 한 스님은 "은퇴출가자는 승려생활의 기초인 습의에 어려움이 따르고 그 숫자도 적다"며 "나이 많은 후배가 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는 거의 모든 본사가 은퇴출가자를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B교구본사 스님도 "제반사항이 구축되지 않은 채 은퇴출가자를 받아들이긴 어렵다. 은사 스님을 모시기에도, 다른 행자와의 대중생활에도 걸리는 문제가 많다"고 고충을 호소한 뒤 "교구본사는 중앙에서 만든 출가제도를 떠안은 셈이다. 이로 인한 부담은 본사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은퇴출가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교구본사에 신청하고, 교구본사는 출가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일부 교구본사들은 내부적으로 은퇴출가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퇴출가에 대한 교구본사의 부정적 여론이 제도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C교구본사 관계자는 "솔직히 은퇴출가자도 몇 명 없지만 무엇보다 사중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출가 안내는 하되 우리 본사에서 은퇴출가자를 받지는 않는다"고 내부사정을 설명했다.

은퇴출가 행자 현재 17명
특수출가임에도 적지 않아
첫 수계자 배출도 다가와

현장인 교구본사는 부정적
습의 · 은사 설정에 어려움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돼

이처럼 많은 교구본사들이 나이 많은 행자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은퇴출가 문의는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교육원에 접수된 출가문의 44건 중 은퇴출가 관련 문의는 10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보완 필요성도

이와 더불어 현재 은퇴출가를 시행 중인 교구본사에서는 중도 퇴사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의 보완을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26명이 은퇴출가 했으며, 이 중 9명이 중도 퇴사했다. 표본은 적지만 일반출가자 중도 퇴사율 26~27%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E교구본사 교무국장 스님은 "지난해 다른 본사에서 출가하지 못해 찾아온 은퇴출가자가 두 달 정도 행자생활을 하다가 돌아갔다. 호적정리를 위해 가족들을 찾아갔다가 해결하지 못한 채 속세로 돌아간 것"이라며 "일반출가자는 출가 6개월 이전에 호적을 정리해야 하지만 은퇴출가자는 행자생활 중에 해도 된다. 다시 가족을 만나다보면 굳은 의지가 흔들릴 수 있어 미리 정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F교구본사 관계자는 "은퇴출가는 일반출가에 비해 행자 · 사미기간이 더 길다. 65세에 출가하면 최소 71세가 돼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은퇴 이후 사판보다 이판에 집중해 수행생활을 장려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법계와 선거권 등이 제한돼 관심이 적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퇴출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논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회향출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은퇴출가는 특수출가이기 때문에 여생을 사찰에서 회향하고, 봉사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스님을 신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구족계를 제외한 별도의 수계규정을 두고, 비승비속과 같은 유연한 출가제도처럼 운영해야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법진 스님 징역 확정… 사퇴 촉구 거세

대법원, 1월 17일 상고 기각
징역 6월 원심 양형 인정

사무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징역 6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진 스님을 비롯한 이사회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1월 1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10월 피해자가 법진 스님을 고소한지 2년 3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법진 스님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법진 스님의 사퇴를 촉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의 총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이 1월 17일 법진 스님의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 이사회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분원관리규정, 승려관리규정에 의거해 승려자격이 없다. 따라서 법진 스님은 이사와 이사장 직위에서 사퇴함은 물론, 정법사 분원장 직위와 창건주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법진 스님 사직서를 보류하고, 죄가 없다는 취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한 이사회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학원미래포럼은 전국 창건주 · 분원장이 참여하는 비상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선학원 정상화에 나서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공사찰 분원장이 이사 및 감사를 맡지 않도록 재단 정관을 개정하고, 지역과 분원 수를 기준으로 이사를 안배할 것, 비구니 이사 비중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선학원 정관에는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징계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포럼은 "이사의 기본 자격은 분원장이다. 이번 판결로 법진 스님은 분원장 자격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사 자격도 상실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미래포럼은 "법진 스님의 성추행 확정판결로 선학원은 씻을 수 없는 치욕적 역사를 갖게 됐다.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 하루 전 이사회는 법진 스님을 비롯한 임원 6명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후안무치한 결정을 했다"면서 "뜻있는 분들의 지혜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학원은 1월 24일 차기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다. 미래포럼은 이 이사회서 법진 스님과 이사진의 거취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 시 직무정지가처분이라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호섭 기자

靈鷲山雲門寺

雲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19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기간 _ 2018년 12월~2019년 1월 24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예비소집일 _ 2019년 1월 24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전형일시 _ 2019년 1월 25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_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3)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강주 일진
학장 진광 주지 운산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9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당일접수도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_ 2019년 1월 25일(음력 12월 20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4) 종단 교육연수비 지원 5) 해외 연수비지원 6)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강주 일진 주지 운산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